

공직자 금품·향응 수수금 전액 환수

국민권익위, 현행 징계부가금제도 개선 등 권고... 내부 징계로 종결시 환수 장치 없어

앞으로 공무원 및 공사·공기업 직원이 금품·향응을 받은 것이 적발되면 비위로 발생한 부당 이득금이 전액 환수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O)는 최근 계속되는 공직자의 금품·향응 수수 비위 근절을 위해 현행 공무원 징계부가금 제도를 개선하고, 공기업 직원 등에 대해서도 금품·향응 비위로 수수한 부당이득금을 전액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결과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금품·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1,202명 중 사법기관에 고발돼 벌금 등을 처분받은 사람은 34%인 총 407명이었다. 나머지 795명(66%, 수수금액 25억 3천만원)은 사법적 처분 없이 내부 징계로 종결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공직자가 금품·향응을 받으면 사법적 절차에 따른 벌금 등으로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있으나, 내부 징계로 종결되면 비

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

보완책으로 지난해 3월부터 공무원의 금품·향응비리에 대해 수수액의 1~5배이내의 부가금을 부과하는 징계부가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제도 시행 이후 금품·향응 수수비위로 총 140건에 약 3억6천여만원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되기도 했다.

그러나 권익위 실태조사결과 징계부가금 부과요구를 누락하거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을 미부과하는 등 징계부가금

제도가 임의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징계부가금제도를 보다 현실화하기 위해 징계부가금 부과·감면·경감 등에 대한 세부처리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공기업(44개)과 지방공기업(50개)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82%가 사법적 고발조치 없이 기관 내부징계로만 종결돼 수수액 8억4천여만원이 수수자의 부당

이득으로 방치됐다.

이에 따라 공기업, 지방공기업 직원의 금품·향응 수수금액에 대해서도 발생한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사규 등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 비위에 대한 사후적 처벌이 강화돼 부패근절 및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광호 기자

강원도정 소식

경로당 활성화 워크숍 개최

도 여성가족연구원...시군 담당 공무원 참석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원장 김미영)은 지난 12일 오후 2시 연구원 2층 회의실에서 도 및 18개 시군 경로복지담당 공무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방안' 워크숍을 개최했다.

강원도는 노인들의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노인들의 여가시설인 경로당은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으며 친목도모와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의 장소로 일반화된 여가시설이다.

그러나 열악한 시설과 설비로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으며, 특히 경로당을 기본적으로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운영비와 난방비가 부족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내의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로당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책임자 1천명과 경로당을 이용하는 회원 2천명을 대상으로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로당의 운영비 지원에 대한 A형(단순기능), B형(복합기능), C형(노인여가센터)의 3가지 표준형 지원 모형을 제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해 시군의 의견과 실정에 따라 적용가능한 지 연구자의 발표와 함께 담당공무원과의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이 이뤄졌다.

강원도는 연구결과와 워크숍을 통해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에 대한 운영방식과 지원방식에 대한 표준모형을 2012년부터 적극 도입할 예정이다.

최광호 기자

건설인·공무원 시공기술 교류·친목도모

제2회 고성군 전문건설협회 체육대회 열려... "성실 시공 다짐"

고성지역 전문건설협회 회원사와 고성군청 담당 직원들이 모처럼 자리를 함께해, 시공기술을 교류하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제2회 고성군 전문건설협회 체육대회가 지난 12일 고성종합운동장에서 열렸다.

고성군 전문건설협회(회장 김정명)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전문건설협회 회원사 및 고성군청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20분 개회식을 시작으로 족구 및 배구의 경기가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무원 2개팀 전문건설인 4개팀으로 구성해 진행된 체육대회 결과 배구 우승은 건설과 A팀, 준우승은 건설과 B팀, 3위는 전문건설협회 D팀이 차지했다.

또 족구 우승은 건설과 B팀, 준우승은 전문건설협회 D팀, 3위는



지난 12일 고성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2회 고성군 전문건설협회 체육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배구 시합을 하고 있다.

건설과 A팀이 차지했다. 각 종목별 1위팀은 30만원, 2위팀은 20만원, 3위팀은 10만원의 시상금이 전달됐다.

전문건설협회 회원사들은 이날 행사에서 체육경기와 다양한 상품이 걸린 경품행사 및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건설 경영과 현장에서 발생한 스트레스를 털어내고 친목과 정을 나눴다.

김정명 고성군 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 전문건설인과 관계 공무원들이 서로 협력하며 우의를 다지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며 "오늘 행사를 계기로 앞으로 시행되는 각종 건설공사의 성실시공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겠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11월 1일~12월 15일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모집

고성군, 27일까지 10명

고성군이 민주적이고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가운데, 이달 27일까지 주민을 대표해 활동할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위원을 모집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정원은 20명이며, 이번에 공개 모집하는 인원은 10명이다. 나머지 10

명은 읍면장 추천 5명, 기타 5명이다.

공개모집 신청자격은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지역에 소재한 사업체의 대표 또는 임직원이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문의 : 680-3217> 최광호 기자